

코웨이,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진행

25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경영전략 학회 ASL과 첫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연세대·고려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 경영학회 SBA(Sharing Business Analysis)와 프로젝트를 함께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학생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약 3주간 ▲정수기 고객 접점 확대 전략 ▲자가관리 고객 맞춤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팀별로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코웨이



에이스침대, 루게릭병 환우 위해 기금 1억 기탁

에이스침대가 루게릭병 환우들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승일희망요양병원 운영 기금 1억원을 기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가로 실천했다. 이번 기탁으로 누적 후원금은 총 5억원에 달한다. 이광진 에이스침대 영업본부장(왼쪽)과 승일희망재단 로션김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스침대



CJ대한통운,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 지원

CJ대한통운은 구세군 종, 자선냄비, 봉사자 점퍼 등 '2026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을 전국 17개 시·도 350여개 거점으로 배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대한본영에서 집화된 물품은 CJ대한통운의 통합 배송 브랜드 '오네(ONE)'의 전국 물류망을 통해 각 지역으로 전달된다. /CJ대한통운



CJ올리브영, K-뷰티 청년 인재 육성 박차

CJ올리브영은 K뷰티 인재 육성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이 퍼스트 미라클' 2기와 수료생 커뮤니티 '미라클 클럽'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뷰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2기 교육생에게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 뷰티 기업 현장 체험,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CJ올리브영



셀트리온, 멸종위기 '저어새' 서식지 보전 활동

셀트리온은 시민단체 '저어새와 친구들'과 협력해 인천 남동유수지 내 인공섬인 '저어새섬'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서식지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셀트리온 임직원들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저어새섬의 안정적인 번식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셀트리온

포스코DX, 직원 AI 아이디어 업무 적용·사업화 추진

'AX 해커톤 2026 시즌 2' 열어
68개팀, 154명 직원 참여
'1인 N에이전트' 문화 확산 주력

포스코DX가 직원 주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포스코DX는 지난 24일 판교사옥에서 'AX 해커톤 2026 시즌 2'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총 68개 팀, 154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사내 핵심기술 전문가와 AX 기술 전담 임원 등의 심사를 거쳐 ▲온톨로지 기반 암묵지 수집 에이전트 ▲시스템 API 자동 생성 에이전트 ▲PLC 리버스 엔지니어링 플랫폼 ▲AI 기반 MES 테스트 플랫폼 ▲지능형 공급망 모니터링 플랫폼 등 5개 아이디어가 최종 결선에 올랐다.



포스코DX '2026 AX 해커톤 시즌2'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DX

대상은 PLC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동화 플랫폼을 구현한 오민우·정혜원·송진오 프로가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포상과 해외 AI 콘퍼런스 참관 기회가 제공된다.

포스코DX는 우수작을 추가 개발·고도화해 현업에 적용하고 외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 상반기 개최한 시즌 1의 출품작들도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 자원관리 에이전트 '도비'는 여러 시스템과 엑셀 파일에 분산된 인프라 운영 정보와 사용률 등을 자연어 질의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배터리·소재 정보 공유를 위한 AX 인사이트 포털 등 다른 출품작들도 현업 적용 또는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DX는 모든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1인 N에이전트'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내 AX 소통 채널인 'AX 빌리지'를 개설해 직원들의 AI 활용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DX 관계자는 "업무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도전과 협업을 지원해 이들의 AX 역량이 업무와 사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소방관 지원 공로 인정

'시슐랭 스타 10선' 기업 선정
무인소방로봇 기증 등 사회 공헌

현대자동차그룹이 첨단 로봇 기술부터 의료·휴식 지원까지 소방관의 안전과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시슐랭 스타 어워즈'에서 '시슐랭 스타 10선' 기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시슐랭 스타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우수 기업 선정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무인소방로봇 기증과 국립소방병원 지원, 소방관 회복지원차 기증 등 다양한 소방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소방청과 공동 개발한 무인소방로봇 4대를 기증했다. 무인소방로봇은 고열과 짙은 연기 등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 먼저 투입돼 원격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대원의 안전한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무인소방로봇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 /현대차그룹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에 구급차 2대와 재활 로봇 3기, 고압산소치료기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소방관의 휴식과 회복을 돕는 회복지원차 10대를 전국 소방본부에 전달했다. 2024년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EV 드릴 랜스'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SDI 울산사업장, 녹색경영 '대상'

'녹색경영 우수기업'서 장관상
폐수 90%, 폐기물 99.9% 재활용

삼성SDI 울산사업장이 정부가 주관하는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이차전지 업계 첫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수자원 관리와 탄소 감축, 자원순환 전반에서 성과를 쌓아온 점을 인정받았다.

삼성SDI는 울산사업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에서 우수 녹색기업 부문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녹색경영 우수기업은 환경경영 성과가 뛰어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정부 제도로, 우수 녹색기업과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ESG 경영(개인) 등 부문으로 나뉜다. 울산사업장이 대상을 받은 우수 녹색기업 부문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 관리 등에서 성과를 낸 기업이 대상이다.

울산사업장은 오염물질 저감과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에 1999년 처음 이름을 올린 뒤 27년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기후부의 물 절약 사업에서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사업장에 선정됐다. 폐수 재이용률을 90%로 높이고 상수도 사용량을 연간 약 7만4000㎥ 줄인 실적이 반영됐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간 약 5000톤(t) 줄였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99.9%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즈의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에서도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았다. 삼성SDI는 이 같은 사업장 환경 성과를 바탕으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DJBIC)에 21회 편입돼 최다 편입 기록을 세웠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도 AA등급을 받았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9개 제품 우수디자인 선정

무선 스피커·공기청정기
'1인 가구 위한 디자인 특별상'

LG전자가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국내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에서 총 9개 제품을 수상·선정 명단에 올렸다.

LG전자는 '2026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과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선 스피커 'LG 엑스붐 미니'와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미니'는 산업통상부장관상에 해당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디자인 특별상'을 받았다.

엑스붐 미니는 간결한 디자인과 모듈식 구조를 적용해 제품 호환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퓨리케어 에어로미니는 설치 공간과 사용자 생활 방식에 따라 액세서리(UP-Kit)를 결합해 공기청정뿐 아니라 조명, 수납, 공기흐름 제어 등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LG전자가 2026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과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포함해 총 9개 제품이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 /LG전자

특히 엑스붐 미니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레드닷, IDEA에서 모두 수상한 데 이어 국내 우수디자인 상품에도 선정됐다.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의 패키지 디자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일체형 구조 설계와 친환경 펄프 소재 적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동, ESG 평가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

기후변화, ESG 투명성 제고 '중점'

대동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6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25일 대동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등급을 기록하며 전 부문에서 지난해 등급을 유지했다. 통합 등급은 2022년 D에서 2023년 C, 2024년 B+, 2025년 A로 3년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A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

올해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ESG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 사

◆ **GS그룹** [㈜GS] ◇사장 승진 △이태형 재무팀장(CFO) 겸 PM팀장 ◇상무 신규선임 △허욱 재무팀 [GS에너지] ◇부사장 승진 △김기환 미래에너지실장 겸 GS차지비 대표이사 [GS파워] ◇전무 승진 △윤창열 안양사업본부장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 선임 △김진학 상무

◆ **삼성웰스토리** ◇부사장 승진 △구선모 ◇상무 승진 △김상완 △김진환 △이기종 △전봉석

◆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승진 △김태정 △신형원 ◇상무 승진 △조형민

◆ **유한양행** ◇임원 인사 △총괄 공동부대표 겸 R&D총괄(사장) 김열홍 △총괄 공동부대표 겸 생산본부장(전무) 강대식